

AUTHOR 박윤선 (Yune Sun Park)

TITLE 칼빈주의 교회론
(Reformed Ecclesiology)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1 no.2 (Summer, 1974):8-25

칼빈주의 교회론

박 윤 선

합의 恩賜性이란 이미 聯合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靈的으로 주어졌다
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연합의 本質的 性格은 靈的이며 不可見
的이다. 이 연합은 組織的 聯合의 基礎로 先行的 基本 條件이다.

연합의 課題性이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靈的 연합을 볼 수 있도록
具體化시키는 地上教會의 힘씀을 意味한다. 바울은 교회聯合의 課題性을 강
조하면서 “平安의 매는 줄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고 하였다.

여기에 聯合運動의 兩面性과 그 順序가 밝혀져 있다. 이미 “성령께서 하
나되게 하신 것”과 우리 地上教會가 “힘써 지킬”일, 이 두 가지엔 分明한
順序에 있어서 後者が 前者에 앞설 수 없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참 연합운동이란 信仰的 一致를 無視하고 組織的 聯合만을 앞세
울 수 없다. 여기에서 W.C.C.的 연합운동의 오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주
어진 聯合을 앞세워 地上教會의 組織的 聯合을 힘써 지키는데 獨善的 排他
主義를 따를 수 없다. 이 點에 있어서 I.C.C.C.는 아쉬운 脆弱點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조직적 연합을 내세워 生命的인 敎理의 純潔과 信仰告
白을 버릴 수 없고 同時에 靈的 聯合을 내세워 可見的 聯合의 努力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나 연합운동에 있어서 이 두가지 면을 다 같이 重要視한다 할지라도,
順序와 Priority가 바로 결정되지 않으면 그 연합運動은 結局은 失敗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조직과 능력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며 연합운동의 方向이 되기 때문이다.

<총회 신학대학 교수>

인간은 성품에서부터 벌써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홀로 살
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는 그렇게 단체 의식을 타고 나서 그 어느 순간이라도
단체없이 성립될 수 없는 生態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러하다(H. Bavinck, 개혁 교의학 제 4 권, 1911년, p.296).

I. 개 론

1.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ἐκκλησία)란 말은 불러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이다(벧전 2:9, 롬 11:1-5). 칼빈은 말하
기를, “선택의 거울은 그리스도(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라고 하였다. 곧, 누
구든지 진실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택함 받은 자란 뜻이다. 인간의 개인적
성품에 의한 집합은 교회가 아니고 종파(sect)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까지
나 하나님의 계약과 말씀에 근거하고 성립된다.

2. 인류와 교회

번역한 인류는 그 歷史의 초두에서부터 교회를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일 것을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때서 결정된
것이다. 아벨이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반면에, 가인은 불행자들을
대표한다. 그 뒤에 구약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민 운동은 바로 교회운동이었
다. 이 운동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새 이스라엘 운동
으로 성취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의 교회 설립 교훈을 많이 볼 수
있다. 특별히 마 16:18 이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는 이
밖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 설립에 대한 간접적 교훈을 많이 볼 수 있다. 예

를 들면, 속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이 개시된다는 말씀(마 21 : 23-46),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으 시켰다고 하신 말씀(마 4 : 19), 또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마 18 : 15-20) 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교회 설립이 舊約啓示의 성취라고 생 각할 때에 문제는 명백하게 해결된다. 구약재시는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하 여 왔는데,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오 셴다는 말은 곧 바도 교회에 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 는 교회는 메시아의 수반 현상이기 때문이다.

3. 신약 시대의 교회관 변천

우리는 2,3세기의 교회가 점점 교회 통일성의 영적인 내용을 외부적인 것으 로 바꾸게 됨을 볼 수 있다. 사도 후 시대가 처음에는 통일성에 대하여 영적 으로 바로 생각하였다(Clemens Rom. 1 Cor. 46).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 곧 복된 하나님의 택성이라고 하였고 (Tertullianus, *Dial. c. Tyrph*, 116, 123, 2), 기독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 의 단체라고 하였다(Justinus, *adv. haer.* IV, 36, 2). 그러나 그 후의 이단자 들이 일어나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막으려고 영적 통일에 주력할보다 외부적 통일에 힘썼다. 그들은 말하기를, 감독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였다 (Irenaeus, *adv. haer.* I, 102).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 통일을 위주하게 된 역사적 제단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곧, 성경을 보던 장로들 중에는 治理에만 관계하는 이들이 있 고, 또는 치리와 교훈을 결하여 시무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H. Bavinck 은 말하기를, “모든 감독은 동시에 장로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사도들 과 및 사도 직후의 교부들이 별세한 뒤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엄밀히 행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개 교회에서는, 장로들 중에서 교훈까지 맡아 교역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이제부터 “감독”이란 이름을 그에게만 전용하게 되었다 (Calvin, *Institute* II, pp. 333-334).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벌써 “감독”은 교회 안의 장로들과 다른 조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3세기에 이르러 감독의 직권이 더욱 강화되고 교회의 중대한 일은 감독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었다. 4세기에 이르러서는 대감 독 제도가 생기던 한 지방 안에 있는 모든 감독들은 대감독에게 복종하게 되 어 있었다. 그리고 제 5세기에는 로마의 감독이 모든 지방 교회의 감독들을

통솔하였으니, 그가 레오 1세(Leo. I, 440-461)이다. 법황의 교회 통치가 이런 역사적 단계를 경유하게 된 것이다(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V, pp. 336-337).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루터가 다시 교회를 성도의 交通 으로 보고, 모든 신자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개혁의 결 과는 칼빈주의 교회 안에 더욱 명백화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은, 교권주의자가 어느 교파에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일어나서 진리보다 권리 를 위하여 싸우는 불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II. 교회의 종별

신학상으로 교회의 분별은 다음과 같다.

1. 전투적 교회와 승리의 교회 (Church Militant & Church Triumphant)

(1) 전투적 교회는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가지는 것을 그 특 색으로 한다(히 12 : 4). 이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한다. 날마다 영적으로 잘 싸운 자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승리의 교회에 참가한다(히 12 : 23). 그런데 전투적 교회의 전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공격전인 동시에 방어전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장 절들이 있음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엡 6 : 10-20; 히 12 : 4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 현세에 처한 교회가 진리를 파수한다고 하면서 防禦戰만 위주한다면 그것은 소극적이 고,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를 자취함이다. 그만큼 그 교회는 증거할 기회를 놓 치게 된다. 바울은 복음을 굳게 파수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은 넓게 하였 다(고전 9 : 19-23).

(2) 승리의 교회는 하늘 위의 교회이니, 완성된 성도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것에 대하여는 히 12 : 23이 잘 묘사한다. 특별히 요 14 : 1-6의 천국 교훈은 승리 의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Luther는 이 점에 대하여 잘 주석하였 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곧,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라고 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이 내세 문제에 대 하여 추상적으로 알고자 함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 즉, 예수님을 알면 그 길 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 더 알아 볼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이다. Luther는 이 점에 대하여 다시 주석하여 말한다 : 곧, “내세에 대하여 우리는 육체적 눈과 귀로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만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Luther의 말대로 지식의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이다. 하나는 육체적 눈과 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靈적으로 믿음인데, 내세에 대하여는 이 둘째 것만이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Evangelien Auslegung, Vierter Teil, s. 385*). 여기서 Luther는 來世를 아는 방법으로서 다음으로 믿는 신앙(Glauben des Herzens) 밖에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안으로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고 한다(*Evangelien Auslegung, Vierter Teil, s. 385*).

2.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 & Invisible Church)

이것도 동일한 교회를 양 방면으로 논함이다. 교회는 현실에 있는 대로 볼 때에는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본질적으로 생각 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보이는 교회(유형교회)란 것은 마치 영혼에게 있어서 몸과 같이 비유된다. 이것은 신앙 고백, 덕행, 복음 사역, 조직과 행정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사실 즉, 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신 사실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실, ②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부적 실정으로 성립된다.

우리는 교회를 식별함에 있어서 너무 外觀만 위주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의관관 위주하다가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외모주의자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이미 옮겨 적었고 신봉하여 내려오는 우리의 信條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밖에는 피차 협력할 복음주의 교파가 없는 듯이 남들을 모조리 무시하려 들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교파의 교리는 굳게 파수하면서 역시 어떤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다른 교파들과도 어느 정도 합작하여 복음 전할 길을 결손히 모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들과 합작하므로 우리 교파의 장점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더 널리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다.

3. 유기적 교회와 기관적 교회(Church as an Organism & Church as an Institution)

이것은 보이는 교회의 작용을 다시 분석함이다.

(1) 유기적 교회란, 교인들이 각기 은사대로 섬겨 몸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단합체로 생각될 수 있는 모태 무머기나 기계에 비

유되지 않고 몸으로 비유된다(고전 12:12-27). 그 이유는 몸은 단합체일 뿐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2) 기관적 교회란, 신실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직분이나 방편을 통하여 작업하는 형태로 있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이원론적 교회관 곧, 자연과 은혜의 관념을 버리고, 교회의 기관이 세속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기관 교회는 恩賜의 기관적 표현인 만큼 어디까지나 교직원 선출에 신약의 교훈을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 기관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선출되어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교권주의는 교회를 크게 해롭게 하는 죄악인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받은 은사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

III. 교회의 속성

칼빈주의는 교회의 속성을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교회의 단일성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단일성을 논함에 있어서 영적 단일성을 표준으로 가진다. 영적 단일성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엡 1:22, 5:23), 같은 성령으로 교통함(롬 12:5, 고전 6:17, 12:13, 엡 4:4),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동일함(엡 4:3-5)을 가리킨다(H. Bavinck, *Gerref. Dog. IV. 1967, p.305*).

위의 영적 단일성의 진리를 믿는 교회라면 어떤 나라의 교회든지, 어떤 교파의 교회든지 모두 다 동일체로서 보편적 교회의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와 반면에 로마교회는 의형적으로만 단일성을 생각하여 로마교회 하나만을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여 왔다.

2. 교회의 성결

칼빈주의 교회관에 있어서 신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것과 또는 그들의 생활이 순결함을 가리켜 교회의 성결이라고 한다. 신자들의 성별과 순결의 의미는 그들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稱讚을 받은 사실과 주관적으로는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 함이다(요 17:19, 엡 5:25-27, 딤후 2:14, 살전 4:3, 히 12:14, 벴전 2:9). 어느 시대에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교권을 잡기 위하여 열중하고, 자기 자신은 고요히 반성하지 않

으리 회개하지도 않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들도 인간이므로 그들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한데 있어서는 역시 성결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회개 운동도 성결 운동이다.

3.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이란, 어느 시대나, 어떤 민족 중에도, 어느 땅에나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성”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으나 교회의 보편성을 가르치는 성구들은 성경에 많이 있다(창 12:3, 시 2:8, 사 2:2, 렘 3:17, 말 1:11, 마 8:11, 28:19, 요 10:16, 롬 1:8, 10:10-12, 18, 엡 2:13-14, 골 1:6, 계 7:9).

H. Ridderbos는 교회의 보편성 교리가 복음의 message 성격 때문에 나온 열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곧, “교회의 보편성은 때가 차므로 신 창조를 가져오는 복음의 내용에 속한다.”라고 하였다(Het universeel karakter van de kerk behoort tot de volheid des tijds, -vomt de inhoud van het geheimnis, nieuwe schepping van God, Eph. 2:15. -Paulus, 1966, p. 376). 이 보편성 사상은 바울이 유대주의를 대항하는 변론을 동기로 하여 말한 것이지만(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에베소서와 디모데서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말한다(같은 책, p. 376).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보편성 교리에 반대되는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신앙을 진실히 고백하는 형제들끼리 유익적인 것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보편성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교파만 참 교회인 듯이 생각하고 다른 복음주의 교파를 무시한다면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朴亨龍博士는 말하기를 “어느 한 교파가 전 기독교회로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教義神學 第六卷, p. 67).

로마교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 안에 대중이 포섭되었다고 생각하여, 로마교회가 보편적 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명칭인 “로마”란 것이 우선 보편성과 반대된다(H. Bavinck, Romisch en Katholiek Zijn ook Met elkander in tegenspraak. -Geref. Dog. IV. 1911, p. 351).

4. 교회의 사도적 유래

칼빈주의 교회관은 사도직을 單回性 있는 것으로 보고, 사도의 교훈(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사도적 유래있는 교회라고 바로 말한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법황을 사도의 직계적 계승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긴다. 그러

므로 그 교회는 말하기를, 법황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나니 법황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와 순결한 교리와 사도적 계승이 있다고 한다(H. Bavinck, 개혁 교리학 제 4 권, 1911, p. 352).

IV. 참된 교회의 標識

참된 교회의 표지는 주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전파함이고, 둘째는 성례를 바로 시행함이고, 셋째는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시함이다. 위의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것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으니 만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과 꼭 마찬가지로 영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표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신성하고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권징으로 말하면 교회의 진실성과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나, 그것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시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V. 교회의 정치

1. 교회에는 여러가지 정치, 형태가 있다.

(1) 무정치주의: 예를 들면 웨이커 교파에서는 교회가 정치를 시행함은 죄악이라고 하였다. 이 교파는 생각하기를, 정치 시행은 교회의 신성한 생활을 해롭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회 정치는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교훈되었다(마 18:15-17). 교회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시행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현대에는 웨이커 교파에서도 무정치 제도를 교정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교직자들을 두고 있다.

(2) 국가에 위임하는 정치 제도: 이것은 에라스티안 제도(Erastian system)라고도 불리운다. 이 제도에서 가르치는 바는, 교직자들은 복음을 가르칠 뿐이고 정치는 국가에 일임해야 된다고 한다. 곧, 교회는 신성한 기관인 만큼 정치 행위를 직접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속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신성한 단체인 교회의 처리를

언제나 바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교회 정치를 국가에 위임하는 제도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의 교회 실정에 의하여 얼마동안 시행된 것 뿐이다. 지금은 그것도 많이 수정된 형편이다.

(3) 감독 정치: 이 제도에서는 교회 행정을 전적으로 감독에게 일임한다. 이 제도에서는 회중(Coetus Fidelium)이 행정에 절대적으로 상관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감독들이 사도의 직접 계승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과오를 범한다. 사도직은 교회 설립의 기본적이고 또 단회성을 가졌던 것이다.

감독 정치는 영국 성공회란 교회가 사용한다. 영국 성공회의 유래에 대하여 아래에 간단히 진술하여 본다. 즉 헨리 8세가 안 볼레인(Ann Boleyn)이란 여자를 첩으로 삼으려고 법황의 허락을 구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음으로 그는 카톨릭에서 영국 교회를 독립시켰다. 그 후에 그 첩의 아들 Edward 6세가 왕이 됨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등용되어 영국 교회의 신조도 제정되었으니, 그것이 39조의 신조이다. 이 때에 모범 기도문(Book of Common Prayer)이란 책도 제정되었고, 예배 의식은 루터 교회적이고, 교리는 칼빈주의적이다. 이렇게 영국 성공회가 성립되었다.

(4) 법황 정치: 이 제도에서는 법황이 베드로의 직접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법황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위에 벌써 말한 것과 같이 사도직은 단회적이었다). 깰본(Gibbons)이란 주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모든 교회 치리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또한 그같은 주권이 법황에게 있도록 되었다.”고 한다(Faith of our Fathers, p. 95). 이것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 전통은 마 16:13-19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 1법황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16:18이 그 사실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이다. 그 귀절은 말하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여기 언급된 “베드로”(반석이란 뜻)란 말은 남성 명사이므로 그것은 물론 “베드로”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이란 말은 여성 명사이므로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한 말)을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의 교회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의 “열쇠”란 말은 로마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베드로(그 후에는 법황)의 절대적 주장권을 언제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 설립의 권위를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그 권위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마 16:19) 권위를 주셨다(요 20:23). 그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법황권과 같은 절대적 치리권을 스스로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행전 5:1-3, 행 15:26). 베드로에게 대한 바울의 태도도 비판적이었다(갈 2:7, 11, 고전 9:1, 5).

로마교는 베드로의 로마 주재(25년 동안 법황으로 42-67 A.D.)를 말하나, 그것은 전설에 의한 것 뿐이고 성경적 증거는 아니다. 고고학자들도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행전 5:13에 언급된 “바벨론”은 종종 로마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해석이다. 베드로 전서는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자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다. 그러나 만큼 이 말은 사실상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였든지, 혹은 상징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유대인 기독교자들의 단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5) 회중 정치: 이것은 독립 정치라고도 불리운다. 이 제도에 있어서는, 회중이 교회 운영에 대한 일체 권리를 가질 뿐이고 교직자들은 치리권을 전연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제도도 일반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회중의 투표에 의하여 택함이 되는 것인 만큼 회중을 기본으로 하고, 회중에게서 권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운 것인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도 하다.

(6) 장로교 정치: ① 장로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의미에서도 머리가 되시지만(요 15:1-8, 었 1:1, 22, 23, 2:20-22, 4:15, 5:30, 골 1:18, 3:11), 교회를 치리하는 의미에서도 그는 머리가 되신다(마 16:18, 19, 23:8, 10, 요 13:13, 었 1:20-23, 4:4-5, 11-12, 5:23-24). ②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는다. ③ 그리스도께서 교회 회중에게 권세를 주시어 치리에 참가케 하심을 믿는다. ④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표자들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는다. ⑤ 그리스도께서 지교회의 치리회를 기본으로 하여 상회를 세우도록 하심을 믿는다.

2. 성직의 제도

성직의 제도에 있어서는 특수직과 일반적이 있다.

(1) 특수직으로는 사도직이 있었고(고전 9:1-2), 선지자들이 있었고(행 11:28, 13:1-2, 15:32, 고전 12:10, 열 2:20, 3:5, 4:11), 전도자들이 있었다(행 21:8, 열 4:11, 딤후 4:5).

(2) 일반직으로서로는 주로 세 가지 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곧, 목사직(가르치는 장로 혹은 교사—열 4:11)과 장로직(다스리는 장로—딤후 5:17)과 집사직(빌 1:1, 딤후 3:8, 10, 12, 행 6:1-6)이 그것이다. H. Bavinck은 이 직분들이 은사 본위로 성립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의 정치는 민주 정치도 아니고, 독재 정치도 아니고, 소수 정치도 아니고, 귀족 정치라고 하였다(*Geref. Dog.* IV. 1911, p. 424). 여기 이른바 귀족은 돈이나 지위로 말미암은 귀족이란 뜻이 아니고, 그 직분을 받은 자가 특수한 은사를 받은 자란 의미이다. 그는 이 직분들의 사역을 따라서 분류하기를, 이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왕직(다스리는 장로), 선지직(가르치는 장로 혹은 교사), 제사장직(집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곧, 장로는 다스림에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왕직에 해당되며,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직에 해당되고, 집사직은 물질 취급에 의하여 불쌍한 자들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H. Bavinck의 이같은 주장은 결코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이 신약 시대의 집사직과 꼭 같다는 것은 아니다.

(3) 성직에 부름받는 원리: 제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기적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보통 성직자들이 일반적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은 주로 두 가지 계단을 경유하게 된다. ① 내부적인 것. 바빙은 이 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였다. 첫째, 그 성직을 담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 둘째, 그 성직을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 셋째, 그 성직에 인도함이 되도록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같은 책, p. 415). ② 외부적인 것. 그것은 성직을 받는 자마다 교직자들의 인도를 받아 회중의 투표를 경유하고 안수를 받음이다(행 6:6, 13:3, 딤후 4:14). 안수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와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그에게 부여된다는 뜻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안수가 그 첫째 의미만 갖고, 둘째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하나, 그것을 교

리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토착교회는 안수를 성례로 간주하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성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안수가 성경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 일에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3. 치리회의 제도

A. Kuyper는 말하기를, “성령이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교회 정치로도 교회를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정치가 나쁘면 비록 정통 직원들이 있다고 하여도 교회의 타락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성경은 개인 자격으로 교회 치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또한 회중적인 교회 치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본다. 회중과 교직이 합하여 교회를 치리함이 성경적 원리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한다. (1)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스렸고, 바울도 장로들을 세우야 되는 원리를 말하였다(행 11:30, 14:23, 20:17, 고전 12:28, 히 13:17). (2) 장로 선택은 회중이 하도록 되어 있다. 회중이 장로들을 택한다는 것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장로들의 자격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회중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만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라도 회중이 교회 치리에 참가함은 확실하다.

(1) 지교회의 상대적 자율성: 모든 지교회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로 상회의 무조건적 역할을 받을 처지에는 있지 않다. 그러나 상회는 제한된 분야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치리를 맡은 것인 만큼, 지교회는 일반 교제가 상회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결정할 일에 순종할 처지에 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설립된 교회는 다른 교회의 연락없이 교회의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에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때문에 서로 교통을 가지며, 연락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상회가 생긴 것이다. 성경에 상회를 형성하라는 명령은 없으나 교회의 본질로 보아 그것의 존재가 요청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만큼 모든 지교회들이 한몸과 같이 서로 연락하여야 될 것도 사실이다. 사도 행전 15장에 기록된 공의회는 그 때의 지교회들의 상회로 알려진다.

(2) 상회의 하는 일들: 상회는 지교회가 낙착되지 못하는 난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교회의 통일과 연락에 관계되는 일들을 취급한다. 예를 들면 지교회들이 일치하게 고백해야 할 교리, 예배 모범, 권징, 조례 같은 것을 작성하는 일이다.

4.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가 교회의 머리되시며,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마 16:19, 요 20:23). 또 일반 교회에도 주셨으니 만큼 교직자들로 하여금 사역적(ministerial)으로(주장함이 아니고 봉사적 정신으로 한다는 뜻)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행 15:23-29, 16:4, 고전 5:9, 13, 6:2-4, 12:28, 열 4:11-16). 이 사역은 일종의 예배 행위이다. 그 권한은 자율적, 독립적, 절대적 권세가 아니다(H. Bavinck, 'En dan blijkt zij geene autoritaire, onafhankelijke, soevereine heerschappij te zijn.—Geref. Dog. IV, 1967, p. 375).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취해지는 행사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직자들이 이 권세를 회중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그러므로 교직자들의 권세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사역적인 것이다(마 20:25-26, 28:18, 행 4:29-31, 20:24, 롬 1:1, 고후 10:4-5; 벧전 5:3).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증거하는 권세와 또한 자비를 행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만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경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교회는 권정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권정의 목적: 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높이며, ② 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되며, ③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새 생명을 가지게 하며, ④ 일반 敎衆으로 하여금 반성과 근신을 늘 가지게 함이다.

(2) 권정 실시의 방법:

① 권정의 대상은 無人格의 사물들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권정은 그 대상을 취급할 때에 단체 취급으로 하지 않고 오직 개인 취급으로 하되 세례받은 신자에게 국한하여서 시행된다.

② 교회가 권정할 죄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곧,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끄럽게 하는 발칙전에 국한하여서 시행되는 것이다. 권정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숨은 과오와 나타난 범죄이다. 나타난 범죄는 물론 공적 권정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려졌으면서도 공중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죄에 대하여는 마태복을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은밀히 책망하는 단계를 경유해야 된다. 그 때에 그 범죄자가 확실한 범죄의 증거가

있으면서도 불복하면 그는 공적 권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마 18:17).

③ 권정은 육체적이 아니고 오직 영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벌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體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헐기의 분노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중세기의 교회가 사용하던 그릇된 권정법이었다. 그리고 권정의 방법으로 가축을 해하거나, 범죄자의 시린권을 박탈하거나, 그 밖에 어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지도 못한다. 이런 방식의 권정은 재세례회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범죄자에게 대하여 불법한 악담, 저주, 음해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혹은 범죄자를 공예배석에서 불법하게 밀어내는 것도 옳지 않다.

④ 출교는 최후의 벌인데, 완고히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 범죄자와의 영적 교제를 끊게 하려는 것이다(마 18:7).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대하여 소망을 단절함이 아니다(살후 3:14-15). 언제든지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할 때에는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야 한다(마 18:18, 요 20:23, 고후 2:5-10). 그러나 이런 사람의 회개는 공적 교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이것이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다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인다.

VI. 은혜의 방편(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및 성례를 말함이다. 그런데 그 작용은 어떤 것인가? 로마교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가 그 자체에 은혜를 보 관하고 있다고 잘못 말한다. 그리고 신비가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강조 하면서 말씀(성경)과 성례는 심령 속에 은혜의 역사를 비유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혁신의 교회는 위의 두 가지 견해를 반대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에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으셨으나, 그가 그것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은혜의 방편의 한계는 어떠한가? 교회, 신앙, 회개,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실시하는 자이고 방편 자체는 아니며, 회개, 신앙, 기도 등도 은혜를 받은 결과로 생기는 신자의 주관적 행위이고 은혜의 방편은 아니다. Charles Hodge는 기도도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나, Berkhof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1)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의 범위: 이것은 인격적인 말씀 예

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도 않거니와,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는 계시를 가리키지도 않는다. 이것은 기록된(영감된) 말씀을 가리키는데, 주로 증거자의 입으로 전파되는 때의 그것을 가리키나, 그 밖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을 접촉하는 그 말씀도 가리킨다.

(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 대하여 H. Bavin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사람의 말은... 그 사람과 그 말과의 시간적 혹은 장소적 거리에 따라서 효력의 다소가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現臨하시어 계신다. 그는 언제나 그의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에게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영감되었고, 계속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편되며, 능력있게 되는 만큼 거기서(성경에서) 취하여 전파되는 부분적 말씀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였다(*Gereformeerde Dogmatiek IV*, 1911, pp. 502-503). 바빙은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있는 역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곧, ① 복음은 누월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함(롬 1:16, 고전 1:18, 2:4, 5, 15:2, 엡 1:13), ②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말씀이라고 함(벧전 1:25), ③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함(히 4:12), ④ 영이며 또 살리는 것이라고 함(요 6:63), ⑤ 어두운데 비취는 빛이라고 함(벧후 1:19), ⑥ 마음에 심는 씨(생명 있는)라고 함(마 13:3), ⑦ 좌우에 날 선 칼이라고 함(히 4:12), ⑧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살전 2:13)이라고 하였다(*Gereformeerde Dogmatiek IV*, 1911, pp. 501-504).

바빙은 성경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우리의 손이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 말씀에 능력이 마술적으로 붙어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성경 말씀과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의 능력있는 역사를 무인격 한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령은 무인격 한 능력이 아니며, 늘 말씀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활동하게 하시되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이 말씀(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혹은 강박하게 하시며, 혹은 일어나게 하시

며, 또 혹은 넘어지게도 하신다. 그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Gereformeerde Dogmatiek IV*, 1911, p. 503).

(3)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관련성: 율법주의는 말씀 사역만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필요하게 느끼지 않는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성령의 역사만 필요하게 보며 말씀의 역사를 동한히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의 동반을 주장한다. 성령께서 말씀 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으나 보통으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4) 말씀의 두 가지 부분: 율법과 복음은 말씀의 전 내용이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서로 정반대되는 것인가? ① 바울이 말한 때로 그들이 서로 정반대된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사역 방향을 다음에 두고 말한다. ②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복음을 믿도록 하여 주며, 또 복음대로 살도록 성결의 길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동반되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그러하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만 있었고 복음은 없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약속의 형태로 있었다. 이 약속 형태의 복음이 신약 시대에는 성취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2.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

(1) 말씀과 성례의 비교: ① 말씀은 성례없이도 스스로 존재를 유지하며, 또 스스로 완전하나, 성례는 말씀없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 ②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믿음을 견고케 할에 필요하나, 성례는 다만 믿음을 견고케 할 뿐이다. ③ 말씀은 세계 그 어디든지 가지만 성례는 진실한 신자들만 상대한다.

(2) 성례의 종류

① 세례

(가) 세례와 침례에 대한 변론. 침례는 물 속에 몸을 잠금이고, 세례는 물로써 머리를 조금 적십이다. 침례만이 정당하다고 하는 학자들은 롬 6:3-4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받는 자를 물 속에 잠겼다가(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됨을 표상한다고 함)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예수와 함께 부활함의 표시라고 함)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롬 6:3-4에 기록된 말씀은, 이 성례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침례

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칼빈주의 신학은 이 성례가 정결케 한다(씻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물로 적시는(잠그지 않음) 표식만으로도 그것을 베푼다. 그 근거로서는 구약의 결례에서 추론된다(시 51:7, 절 36:25, 요 3:25-26). 행 2:38, 22:16, 히 10:22, 벰전 3:21 참조. 구약의 결례도 그저 비유와 표식으로서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침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또 다시 마 3:16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란 말씀에 근거한다. 거기서 표현된 대로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왔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세례받기 위하여 낮은 곳(물 있는 곳)에 내려갔다가 언덕으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행 8:38-39도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 성례의 방식 때문에 구원 문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해함이 옳다.

(ㄴ)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아가 할례받은 사실에 근거한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이유는 兩者가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같은 계약에 참여한 자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롬 4:16-18, 고후 6:16-18, 갈 3:8-9, 14, 16, 히 8:10, 11:9, 10, 13). 신약의 계약은 구약의 것의 계속이다. 중보자가 같으며(행 4:12, 10:43, 15:10-11, 갈 3:16, 딤후전 2:5-6, 벰전 1:10-12), 축복받는 조건도 같으며(롬 4:3, 창 15:6), 축복 내용도 같다(시 32:1, 51:10, 사 1:18, 신 30:6, 율 2:28, 32, 행 2:17-21, 히 4:9, 11:10).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계약이 변치 않는다고 힘써 변증하였다(롬 4:13-18, 갈 3:15-18, 히 6:13-18).

(ㄷ) 합법적인 세례. 이것은 목사만이 시행하며, 교회적 규례이니 만능 신자들이 모인 공석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식은 물로 베푼다.

② 성찬

(ㄱ) 성찬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해석들. 로마교에서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주장하여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의 속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본질(substance)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로마교의 이와 같은 이론의 근거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마 26:26)과 요 6:50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 15:1

의 “나는 포도나무요”란 말씀과 같이 해석로 보아야 된다. 그 뿐 아니라 요 6:50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요 6:63). 그리고 로마교는 이 점에 있어서 인류의 감각 법칙과 理性의 법칙을 위반한다. 물질의 속성과 본질은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는가?

이 밖에도 성찬과 관련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주장은 이렇다. 곧, 성찬이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중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회적 완전성 있는 속죄적 희생을 잘못 안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고 신자들을 위한 영적 糧食이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나온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그와 같은 권능으로 주시는 만나와 및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므로 광야를 통과하였다. 그와 같이 신자는 단회성을 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구원 사전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꼭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으로 영적 생명을 이어간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언제나 그로 하여금 영생케 하며, 聖化를 성립시킨다. 영적 음식에 대한 말씀은 요 6:53-58과 고전 12:13에 분명히 기록되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고, 성찬은 그 열어 놓은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갈 힘을 공급한다(히 9:24-28).

루터파는 예수님의 인성이 그 신성과 연합되었으니, 신성의 무소부재 속성에 따라서 인성도 僮在하게 된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의 물질에도 그리스도의 인성(몸)은 섞여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대표하는 어법(synecdoche)이라고 한다. 곧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共存한다는 것이다(마치 인간의 몸과 영혼이 공존함 같이). 이것을 공존설(consubstantiation)이라고 한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억제한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것이 내 몸과 동반한다”라고 고치는 잘못이다.

그리고 쾰클리(Zwingli)는 성찬이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다만 그의 신성이 그 행사에 임하는 것 뿐이고, 그의 몸이 실제로 거기 임재함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 불링저(Bullinger)는, 그가 형성한 제2헬베틱 고백서에서 성찬이 다만 표식 뿐이란 사상을 반대하였다(제 19장). 이것을 보아서 쾰클리도 성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능력적(dynamic)으로 임재한다. 이는 마치 태양이 하늘에 있으면

기도 그의 빛과 열이 땅에 임함과 같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그 영향력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것은 성령의 영향력과는 다르다.”라고 하였다(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II, 1895, p. 628) 칼빈의 말한 바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적 임재”에 대하여 핫지(A. A. Hodge)는 해석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한다 함은 성령에 의하여 그 속죄의 효과가 그 성찬받는 자에게 미침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The Confession of Faith, 1958, pp. 302-303). 바빙은 칼빈의 학설을 신비설(Mystical theory)이라고 하였다(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V, 1911, pp. 610-612).

(2) 성찬은 어떤 방법으로 그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주는가? 토마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회생(죽음은 아니지만)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성찬은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代贖의 회생의 절대 완전성을 무시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회생은 완전하여 중복적으로 다시 회생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단번에 죽으셨다(히 9: 28).

칼빈주의에서는 그것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영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성찬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임한다.

<총회 신학대학 교수>

<p. 54에서>

韓國敎會도 救援船의 사명을 다 하려던 世上을 定罪하거나 모든 罪惡을 不信社會에 돌리지 말고 스스로, 독목히, 말없이, 不平 말고, 체하지 말고, 十字架를 지려는 覺悟를 갖자. 絶望은 스스로 마음 속에 감추고 새 회담을,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민중 속에 들어가 불어 넣고, 불려 일으켜야 할 것이다.

敎會가 吉凶契, 相助契, 婚姻契, 喪布契, 商業契 등을 위한 世俗의 集團體가 아니라면 敎會豫算의 全額을

敎會內에서 消費할 수 없지 않는가! 敎會가 經濟的, 奉仕的 회생을 하던서 傳道할 때에야 그 회생의 정도에 正比例하여 새 決信者들이 늘어날 것이다, 救援船의 役割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終末의 黑雲이 全世界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始發, 新天地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희대 경영대학장>

오늘의 敎會 聯合運動

金 義 煥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연합(unity)과 순수성(purity)을 어떻게 동시에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다. 누구나 교회가 하나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敎派數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神學的 混亂은 날로 격증하여 가고 있는 현실이다.

연합을 위한 교리적 무관심은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한 교회 연합의 무관심은 分離主義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믿어야 할 信條의 통일을 얻는데 실패하여 그 결과로 교파의 多樣性을 보이게 되었다. 그 다양성은 그렇다고 반드시 로마 개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罪惡視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 이후 부산물로서의 諸敎派의 派生이 지나친 敎派主義로 흘러 독선적으로 고질화 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세교회의 지적인 통제주의 하에

서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종교개혁 이후 개인의 성경 해석권이 허락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제질적으로 교파 분립의 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450여년이 지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누리는 지적인 개인주의가 거둬들인 수확은 결코 모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갈라진 교회, 그것도 敎派主義에 매달려 형제끼리의 다툼이 오히려 敎派의 정통성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되는 오늘날의 만신창이 된 分裂相을 우리는 그대로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깨달음이 현실 교회의 관심을 교회 연합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연합의 의미에 대한 諸見解

교회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갈래의 다른 입장이 있다.

로마 개톨릭은 교회의 연합을 교회의 제도적, 조직적 일치에서만 추구한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오직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使徒的 繼承權을 가